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주님 세례 축일 2016.1.10.(다해) 제1980호



상주 삼괴리 천주교 신앙고백비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루카 3,15-16,21-22 참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 주셨듯이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고 남의 허물과 짐을 대신 저줄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의 도구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제1독서 이사 42,1-4,6-7 **제2독서** 사도 10,34-38 **복음** 루카 3,15-16,21-22.

입당송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화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예수님의 출사표

정해철 라우렌시오 신부 | 선목학원 사무국장

출사표(出師表)라는 말은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재상 제갈공명(諸葛孔明)이 위나라를 토벌하러 떠날 때 임금에게 올린 글을 말한다. 출사표란 '군대를 일으키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제갈공명은 그저 군대를 일으켜 사람을 죽여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임금에게 글을 올렸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심으로써 하느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출사표를 던지신다. 제갈공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분의 출사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출사표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출사표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출사표이며,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가 보여주는 위대하고도 장엄하며 동시에 소박한 출사표이다. 이에 세례자 요한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는 말로 그분의 출사표에 최고의 경의를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말로 그분의 위대하고도 소박한 출사표에 경의를 표현 할까? 우리 각 개인이 세례자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경의는 무엇인지 만들어 보자.

그분은 세례를 제정하신 분이시기에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앞서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 놓으셨기에 우리 역시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 놓아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주 단순한 신앙이고 믿음이다. 많은 신학과 교리가 있지만 가장 쉽게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가 힘든 세상살이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을 것을 미리 아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 만큼 사랑하고, 예수님 만큼 희생하고, 예수님 만큼 배려하고, 예수님 만큼 용서하기만 하면 된다. 쉽고도 간단하다.

2016년도 벌써 10일이나 지났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새해의 결심 중에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이라도 최소한 본받자는 우리 각자의 출사표를 세상을 향하여 던지자.

새해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신명나는 2016년이 되도록 하자.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연중 캠페인

평화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장숙희 루시아 수녀 | 민족화해위원회

복음서에는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고백하는 백인대장의 기도があります.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루카 7, 6) 이에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루카 7, 9) 백인대장은 예수님 말씀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이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예수님 말씀의 권능이 성체 안의 주님 현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성체성사와 신앙은 이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현존 의식 안에서 삶을 보다 깊이 있게 통찰하게 하고 형제애의 관계성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이웃 사랑에로의 초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서 발견되는 정의와 평화와 사랑은 같은 원천이신 하느님 안에서 해석할 때, 그 참된 의미가 비로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국가와 사회, 이웃에게로 향하는 관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웃으로서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들이 북한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 우리 곁에서 함께 남한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교황님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미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대화해보면 같은 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과 사랑의 계명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형제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1코린 1, 11, 17-18) 우리 가운데는 “주님과 나”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웃과 맺는 사랑의 관계를 소홀히 하려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성체성사를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하여 우리는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생활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의 실천적인 면에 대하여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1코린 1, 11, 33) 서로 기다려 준다는 것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권고는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천해야만 하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믿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준영 리노 신부 | 죽도성당 보좌

요즘 티비 프로그램 중에 음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시즌3까지 이어질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출연자들은 ‘가수’라는 공통된 정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7명의 출연자는 나이와 성별이 다 다르지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청객과 시청자들에게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 성당에 모인 우리도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이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당 안의 형제 자매들을 둘러보면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청소년, 중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의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주일 성당에 함께 모여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각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 29)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 36)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과 목표들을 세우곤 합니다. 다른 것들도 좋지만, 이번 2016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가수다’의 출연자들이 멋진 가창력과 노래를 통해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베풀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용서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필문**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요한 1,41)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첫 제자, 안드레아 사도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에 이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마르 1,17) 공관복음에서는 열두 분의 사도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 성인과 그분의 동생이신 안드레아 성인을 첫 번째로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아 성인께서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시고 따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라며 형님이신 시몬 베드로 성인을 예수님께 인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열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장 먼저 고백하신 분이 바로 안드레아 성인이신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요한 6,1-15)에서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하셨으며, 예수님을 만나 뵈고자 하는 이방인인 그리스 사람들의 부탁을 예수님께 전해드리고(요한 12,20-6), 시몬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성인께서는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네 제자들, 즉 시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와 함께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아 성인을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프로토클레토스(Protokletos)’란 칭호로 불렀습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성 안드레아의 순교」, 마드리드 프라도 박물관

안드레아란 이름은 희랍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사내다운’, ‘용감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신 성인께서는 그리스에 가서 전교하시다가 네로 황제 치세 때인 기원 후 60년 11월 30일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에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정교회 모두 11월 30일을 안드레아 사도의 축일로 지냅니다.

성인에 관한 그림이나 조각 작품들을 보면 한결같이 X형의 십자가를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X형 십자가는 안드레아 사도를 나타내는 고유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께서 X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인께서는 러시아에서 설교하셨다는 전승에 따라 러시아의 수호성인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는 4세기쯤 성인의 유해 일부가 스코틀랜드로 옮겨졌다는 전승에 따른 것으로, 스코틀랜드 국기에 새겨진 X형 십자가는 바로 수호성인이신 안드레아 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필문**

교구장 동정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월 1일(금) 오전 11시 계산 주교좌성당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 성모당 상설 고해소 축복식



대주교님께서는 1월 4일(월) 오전 10시 20분 성모당 상설 고해소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상설 고해소에서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3시~4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에 고해성사를 볼 수 있다.

개편 안내

1면	교구 내 성지 사진
3면	강영목 신부님의 가정은 희망의 공장 자비의 현장_생명사랑나눔 연중 캠페인 신종호 신부님의 사회 고리(환경 편) 임석환 신부님의 학교 밖 아이들
4면	복음의 눈으로 문화읽기, 사목단상 김종헌 신부님의 눈으로 듣는 성음악 묵상 백미혜 교수님의 가슴으로 보는 성화 묵상 교회에서 비롯된 일상 문화
5면	햇별 한 줌, 재미있는 교회상식, 열두사도 이야기, 교황님 이야기

교구 행사

- 1.11(월) _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정기총회(12시, 전인병원 8층 강당)
프란치스칸 1회 합동서품식(14시, 계산 주교좌 성당)
- 1.12(화) _ 대품피정(18일까지, 한티 피정의 집)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15일까지, 가톨릭문화관 강당)
- 1.14(목) _ 제174차 파스카 창세기 연수(17일까지, 연화리 피정의 집)
- 1.16(토) _ 예수성심시녀회 제13차 총회(9시) / 잼패스티벌(16시, 앞산 청소년 수련원)
- 1.17(일) _ 가나강좌(9시 30분, 가톨릭대학교 병원) / 청년 윤일제(14시, 앞산 청소년 수련원)

우리가족 새해결심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월 11일(월) 10:30 범어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16일(토) 10:00 월성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월 16일(토) 11:00 성모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월 11일(월) 11:00 신평성당	프란치스칸을 위한 후원미사	1월 16일(토) 15:00 프란치스칸회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11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16(토)

장소: 서울 개화동 수도원

대상: 의료봉사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문의: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7(일) 14:00,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첫 토요일 신심 피정(사랑의 성모님)

일시: 2.6(토) 10:00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다사성당, 587-7300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15(금) 23:00~17(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 (031)262-7600

출발: 시민회관 16:00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꽃숨 침묵 피정

기간: 1.29(금)~31(일)

장소: 서울 길음동 성가소비녀회 총원

주제: 빛이 생겨라(창세 1,3)

대상: 20세~35세 미혼 여성

문의: 김오상비오 수녀, (010)3476-5801

교육 | 모집

스칼라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내용: 발성, 찬양, 전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신청: (010)9056-9005

빈마음 모임

일시: 1.17(일) 14:00

장소: 수원 본원

주최: 성빈센트드쁠자비수녀회

(010)8833-8107

2016학년도 전기 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 교육, 특수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 1.5(화)~12(화)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1(특수)

참조: <http://www.cu.ac.kr>(모집요강)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3기 원우 모집

개강: 3.14(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 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2016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12(금) 까지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참조: <http://ci.catholic.ac.kr>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마감: 1.31(일) / uus@pauline.or.kr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러닝학습(동영상 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 / 0840~3

대구평화방송 재능 기부자 모집

대상: 대구, 경북 거주 가톨릭 신자

지원분야: MC, 작가, 리포터, 모니터

전형방법: 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참조

문의: 251-2630 / 마감: 1.31(일)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팬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꽃 숨에 꽃
간지바탕
자연친화적식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명미 카바리나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투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다비드 제통 외과
비수술적 척추, 관절, 신경, 인대 치료 전문
물리치료에 잘 낫지 않는 난치성 통증 전문
원장 권영득 (다윗)

Tel : 053)351-1704
칠곡 동아백화점 사거리
지하철 3호선 칠곡운암역에서 도보 10분

윤원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원희(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대의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백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료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박연신입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박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충북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이애현 피임산부인과
www.piumclinic.co.kr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행사 | 모임

천주교대구대교구 2016 사제부제서품

부제서품식: 1.19(화) 10:00

사제서품식: 1.20(수) 10: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주례: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25(월)~27(수)

장소: 연화리피정의집

고3·대학·일반: 1.27(수)~29(금)

장소: 한티피정의집

(참가 학년은 2016학년도 기준,

등록된 예비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 사무실 / 마감: 1.10(일)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1.11(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관덕정 개관 25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1.16(토) 16:00~18:3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문의: 254-0151

교육 | 모집

2016년 1월 가나강좌

일시: 1.17(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당일 접수)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37차 ME주말: 1.8(금) 19:00~10(일)

338차 ME주말: 1.22(금) 19:00~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8기 성교육강사양성교육과정

제8기 성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기간: 2.1(월)~5(금) 5일간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프란치스카눔 성경공부-마르코복음

기간: 3월~5월 매주(수, 목)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신부

문의: (070)4266-0047 / (010)9100-4114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POP, 가곡·성가, 어린이성악, 통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플룻, 바이올린,

성가반주법, 천연비누·천연화장품,
성인생활영어회화, 텃생·유화·수채화.

문의: 476-6211(지하철1호선 교대역)

채용 | 안내

교구 심리상담소 소람 상담사목교육 모집

개강: 3.8(화) / 1년, 학기당 15주

내용: 기초과정(심리상담과 자기이해)

신청비: 과목당 5만 원(1학기 2과목)

문의: 교구 소람상담소, 250-3100~1

대구정신병원 직원 채용

대상: 조리원(계약직) / 0명

마감: 1.14(목) 15:00

문의: 630-3000

성모당 상설고해소 1.4(월)부터 운영

고해시간: 매주 월~금 15:00~16:00

매주 금 19:30~20:30

대구주보 광고 추가 모집

일자: 7.24 / 7.31 / 8.28 / 10.30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보다 세련되고 슬림한 사이즈의

2016년 신앙다이어리 판매

판매가: 10,000원

판매처: 교구 문화홍보실, 계산서원, 성바오로서원, 성바오로딸서원,

바티카노, 삼덕성당 임마콜라따 성물방, 동천성당 성물방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진라식 · 렌즈삽입술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충원(소시모)
현, 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5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 중 문(파비올라)

치질수술 내시경 건강검진 **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원비 / 여성전용임실
www.hangmuns.com
노성균 신정철
의사 이우구스트도 대우파트너 959-717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미소인치과
원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나)
지하철 병역역 4번 출구
전화상담 053)752-7575 화, 목
www.misoindental.com 아산진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위령회장 이주석 요셉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척추·어깨·무릎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훈(요한) **참조은병원**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